

일본어권 문법 교육의 현황과 방향

油谷幸利*

1.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

1.1. 책임자의 부재

국제문화포럼(일본, 도쿄)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서 설치된 대학교는 400여 대학이 된다고 한다.¹⁾ 그러나 그 대부분은 한국어에 대한 교무 책임자가 없이, 수업에서 교무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일을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가르쳐 주세요.”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 담당자 사이 연계의 부재

모처럼 90분 수업을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씩이나 할애하였는데도, 담

* 日本 同志社大

1) 국제문화포럼(2006),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조선어 교육 -대학교 등과 고등학교의 현황과 과제-”(『日本の学校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国際文化フォーラム)

당자 사이에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각 담당자가 각자 다른 교과서를 쓰면서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결함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같은 교재를 쓰는 경우에도 지난 번 수업 때 가르친 내용을 다시 가르치는 경우조차 있다고 한다.

필자가 한국어의 교무 책임자로 있는 동지사 대학에서는 한국어 담당자 모두가(전임 3명, 시간강사 21명)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해서 수업내용을 그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보고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1.3. Syllabus의 부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데, 명확한 syllabus가 제시되지 않은 채 수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록 자모만을 읽는 연습을 하는 전문대학도 있다고 한다.

1.4. 담당자의 문제

담당자의 전공이 어학이 아닌 역사나 문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물론 문헌을 읽거나 한국어로 회화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사정은 담당자가 원어민인 경우에도 볼 수 있고, 일본어 모어 화자인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어떤 원어민 교수는 ‘활동’을 [활동]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도록 지도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또 어떤 공대 출신자가 일본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를 보면 동사의 현재 관형사형

을 만들 때에는 자동사일 경우에는 ‘는’을 붙이고 타동사일 경우에는 ‘르/을’을 붙인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한다.

1.5. 담당자의 양성

이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여름부터 교토와 도쿄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담당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토 연수회는 5개년 계획으로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8월2일부터 7일까지, 2005년도에는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렸다. 참석자는 각각 30명이며, 2005년도의 지원 액수는 150만 엔(약 1500만원)이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교시는 9:30-10:30, 2교시는 10:40-11:40, 3교시는 11:50-12:50, 4교시는 14:20-15:20, 5교시는 15:30-16:30이다.

날짜	교시	강의	지도 방법 등
9일(화)	1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유타니)	
	2	현황보고(수강자)	
	3	syllabus 작성법(나타이 도시키, 나고야대)	
	4	한국어 음성학(유타니 유키토시, 동지사대)	
	5	한국어 형태음운론(유타니, 동지사대)	
10일(수)	1	발음 지도법1(하세가와 유키코, 규슈산업대)	
	2	발음 지도법2(하세가와 유키코, 규슈산업대)	
	3	외국어 교수법(오대환, 아이치속덕대)	수업준비에 대하여 (하타노 세쓰코)
	4	어기설1(우치야마 마사하루, 법정대)	CAI 작성법 (유타니)
	5	어기설2(우치야마 마사하루, 법정대)	
11일(목)	1	한일 대조언어학1(김선미, 동지사대)	

	2	한일 대조언어학2(김선미, 동지사대)	알기 쉬운 발음규칙지도 (이수경, 오사카외대)
	3	한일 대조언어학3(김선미, 동지사대)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지도 (松井聖一, 압명관대)
	4	오류분석1(이수경, 오사카외대)	
	5	오류분석2(이수경, 오사카외대)	
12일(금)	1	표현영역 지도법1(오대환, 아이치속덕대)	
	2	표현영역 지도법2(오대환, 아이치속덕대)	
	3	한국어 정서법(하세가와 유키코, 규슈산업대)	
	4	15세기조선어 형태론1(고영진, 동지사대)	
	5	15세기조선어 형태론2(고영진, 동지사대)	사전 찾기 지도 (유타니)
13일(토)	1	이해영역 지도법1(오대환, 아이치속덕대)	
	2	이해영역 지도법2(오대환, 아이치속덕대)	
	3	수업 운영법1(마에다 다다히코, 건국중고)	
	4	수업 운영법2(마에다 다다히코, 건국중고)	
	5	북한 사정(아사이 요시즈미, 동지사대)	
14일(일)	1	실습(수강자 2명)	실습(수강자 2명)
	2	실습(수강자 2명)	실습(수강자 2명)
	3	실습(수강자 2명)	실습(수강자 2명)
	4	실습(수강자 2명)	실습(수강자 2명)
	5	실습(수강자 2명)	실습(수강자 2명)
	6	마무리(수강자 및 강사)	

2. 문법 용어상의 문제점

일본에서는 문법 용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크게 2가지 교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교수법이고, 다른 하나는 어기식(語基

式) 교수법이다. 그 외에도 교과서마다 문법용어가 조금씩 다른데²⁾,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모음과 모음자

한글은 표음문자이지만 문자와 발음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는 합성모음자일 수는 있어도 현대 한국어에는 단모음이지 합성모음은 아니다. 교과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용어들을 볼 수 있다.

- 기본 모음, 합성 모음
- 기본 모음자, 합성 모음자
- 단모음, 반모음, 이중 모음

2.2. Speech level

Speech level에 관한 용어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실정이다.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반말	해라체
말본	합쇼 (이주 높임)		하오 (예사 높임)	하계 (예사 낮춤)	(반말)	해라 (이주 낮춤)
배우자	上称形	親しきの上称形				下称形
스텐	上称	略待丁寧形	中称	等称	略待普通形	下称
입문	最敬体	敬体	中称	等称	略待	ぞんざい体
지복	합니다体	해요体			해体	한다体

2) 조선어교육연구회 제17회 모임(2003년 3월 29일)에서 발표된 ‘문법용어 일람’ 자료를 동연구회 회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말본=우리 말본(최현배, 1937, 연희전문학교출판부)
 배우자=朝鮮語を学ぼう(菅野裕臣 등, 1987, 三脩社)
 스탠=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 2(梅田博之, 1991, 大脩館書店)
 입문=朝鮮語入門(油谷幸利, 1996, ひつじ書房)
 지복=至福の朝鮮語(野間秀樹, 2000, 朝日出版社)

2.3. 받침과 종성

받침과 종성을 혼동하는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것 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양자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받침은 문자상의 단위이고 종성은 음성상의 단위이다. ‘산맥’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ㄴ’은 ‘산’의 받침이면서 종성이지만, ‘산애[사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ㄴ’은 ‘산’의 받침이기는 하나 종성이 아니라 ‘ㄴ’의 초성이다. 어떤 교재를 보면 ‘꽃’ 뒤에 ‘이’가 붙어서 [꼬치]로 발음되는 현상을 ‘종성의 초성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성이 초성화되었다면 [꼬치]가 아니라 [꼬디]라고 발음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연음화(連音化)’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종성의 초성화’라는 용어는 ‘꽃 아래’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쓰는 편이 좋을 것이다.

2.4. 조사와 어미

어기식 관점에서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를 ‘체언 어미’, (용언)어미를 ‘용언 어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도 ‘어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용언 어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체가 될 것이다. 체언 어미와 용언 어미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용언 어미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비해³⁾ 체언 어미에서는

3) 전통식에서는 ‘하면서’와 ‘찾으면서’를 각각 ‘하+면서’, ‘찾+으면서’로 분석하는 데 대

이형태를 인정한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전통식	조사	어미
어기식	체언 어미	용언 어미

2.5. 한국과의 차이점

(1) 지정사(指定詞)

일본에서 시판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이 ‘이다, 아니다’를 지정사로 취급한다. 시제 활용을 하고 관형사형 어미가 접속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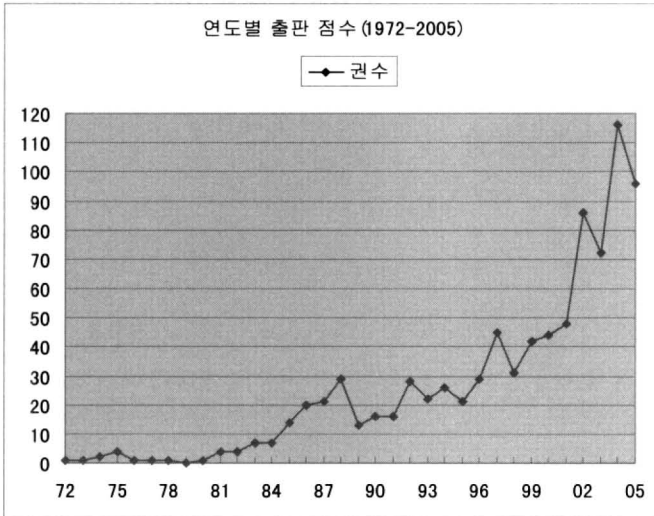
(2) 존재사(存在詞)

일본에서 시판된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이 ‘있다, 없다’를 존재사로 취급한다. 동사와 형용사의 중간적인 활용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	형용사	존재사
현재 관형사형	먹는	작은	있는 / 없는
과거 관형사형	먹은	작던	있던 / 없던
헤라체	먹는다	작다	있다 / 없다

해, 어기식에서는 ‘하+면서’, ‘찾으+면서’로 분석한다. 즉 전통식에서는 어미에 ‘면서/으면서’ 두 가지를 설정하는 데 대해 어기식에서는 ‘면서’ 하나만을 설정하고 그 대신에 어기가 ‘찾/찾으/찾아’의 세 가지 이형태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3. 시판 서적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계
초급	1	31	62	125	219
중급	1	3	3	15	22
고급				2	2
한글(문자)				9	9
작문	1	1	1	1	4
검정시험			37	69	106
입시				4	4
통역				1	1
사전		15	45	20	80
단어집	1	5	15	19	40
회화	2	26	53	75	156
여행회화	2	17	28	40	85

노래			2	2	4
영화				4	4
학술		3	7	10	20
교양		14	10	16	40
잡지				14	14
대조연구		1	1	5	7
대역	3			10	13
편지 쓰기		1	4	10	15
문법		3	3	8	14
정서법			2		2
학습방법			3	3	6
계	11	120	276	462	867

3.1. 출판 점수

1972년 이후 일본에서 시판된 한국어 관련 서적은⁴⁾ 총 867점이 있는데, 70년대에는 1년에 한두 권 정도밖에 시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판 점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88 올림픽 때에 일단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 후 한번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데 한류 열풍이 일어난 이후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2. 분야별 출판 점수

초급이 가장 많고 고급이 가장 적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최근의 특징으로서는 한 권 내내 글씨 연습만 하는 책이 9권이나 출판되었다는 것

4) 이 출판 점수에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양서나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과 영화 대본이 대역 형식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센터 시험의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도입된 이후 ‘입시’라는 분야가 새로 생긴 것 또한 2000년대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4. 동지사대학의 현황

4.1. 초급반

일본어권 문법 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구조가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보다 내용이 다양하고 진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 봄학기 한국어 입문1 = 19반, 690명>

통일 교재 = 실용 한국어(유타니 유키토시, 고영진)

syllabus

- 01 한국어의 개요, 제1과 모음자(1), 자음자(1), 자음자(2)
- 02 제1과 유성음화(1), 모음자(2), 자모순과 사전을 찾는 방법(1)
- 03 제2과 모음자(3), 받침과 종성(1), 유성음화(2), 연음화(1)

-
- 5) 한국에서 쓰이는 교재에는 유성음화에 관한 설명이 거의 없으나, 일본에서 시판된 한국어 교재는 다 유성음화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사람은 보통 ‘간다’의 ‘간’과 ‘안 간다’의 ‘간’의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구미 사람들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며, 음성학적으로 봐도 완전히 다른 음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ㄱ, ㄴ, ㄷ’ 설명을 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구두’라는 단어를 읽으라는 연습문제가 나온다. 어떤 학생이 [kudu]로 읽으니까 선생님은 [kudu]로 읽으라고 하신다. ‘구’ 뒤에 ‘두’가 오니까 [kudu]로 발음했는데 왜 틀렸느냐고 물었는데 [kudu]로 발음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설명 밖에 없다면, 그 학생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 04 제2과 된소리, 조사(1), 자모순과 사전을 찾는 방법(2)
 - 05 제3과 모음자(4), 중성규칙, 연습화(2)
 - 06 제3과 해요체(1), 조사(2), 자모순과 사전을 찾는 방법(3)
 - 07 제4과 합니다체, 음변화(1), 지정사
 - 08 제4과 접미사 -하다, 인칭대명사
 - 09 제4과 음변화(2), 조사(3)
 - 10 제5과 해요체(2), 전성(이/가 되다), 음변화(3)
 - 11 제5과 지정사와 의문사, 존재사
 - 12 제6과 과거형, 한자어 수사, 고유어 수사
 - 13 제6과 날짜, 시각, 조수사(단위 명사)
- 평가 = 평소점 35%, 학기말 통일테스트 65%

<2005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입문2 = 19반>

통일 교재 = 실용 한국어(유타니 유키토시, 고영진)

syllabus

- 01 제7과 어미(-고, -지만, -게), 존경(-시-)
 - 02 제7과 변칙용언(으/르/러)
 - 03 제8과 관형사형(-는, -ㄴ/은, -던), 희망(-고 싶다)
 - 04 제8과 확인(-지요), 변칙용언(ㄷ)
 - 05 제9과 부정
 - 06 제9과 부사형(-아/어), 시행(-아/어 보다), 변칙용언(ㅂ)
 - 07 제10과 미래 관형사형, 추측과 양태
 - 08 제10과 어미 -아서/어서, 허용
 - 09 제10과 변칙용언(ㅅ), 제11과 -겠-
 - 10 제11과 -아/어 주다, 가정형(-면)
 - 11 제11과 의무, 변칙용언(ㅎ)
 - 12 제12과 한다체, 인용문
 - 13 제12과 가능과 불가능, 진행형
- 평가 = 평소점 35%, 학기말 통일테스트 65%

4.2. 2005년도 봄학기 통일테스트 분석

초급반에서는 담당자에 따라 성적이 짜고 후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의 65%를 학기말에 실시하는 통일테스트에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초급반 수강생을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아서 일제히 실시하는 테스트이다. 출제방법은 객관식 50문제, 기술식 5문제이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1	한글 읽기	공포(コボ, コンボ, コンボ, コボ)	0.857
2		계시다(キョシダ, ケシダ, キョジダ, ケジダ)	0.729
3		지하(シハ, シバ, チハ, チバ)	0.825
4		모두(モドウ, ムド, モツ, ムツ)	0.926
5	한글 표기	かなざわ (가나자와, 가나자워, 가나자와, 가나사워)	0.803
6		はこだて (하코따떼, 하고따떼, 하코다테, 하고타테)	0.959
7		やまぐち (야마구치, 야마쿠디, 야마구지, 야마꾸티)	0.883
8		さっぽろ (사보로, 삿포로, 사포로, 삿호로)	0.871
9	자모순	[1.나물, 2.나무], [3.겨레, 4.거미] 1-3, 1-4, 2-3, 2-4	0.939
10		[1.마당, 2.마주], [3.다리, 4.더러] 1-3, 1-4, 2-3, 2-4	0.934
11		[1.읽다, 2.읽대], [3.후회, 4.효율] 1-3, 1-4, 2-3, 2-4	0.915

1에서 11까지는 자모에 관한 문제이다. 1은 ‘ㅇ’ 받침의 발음과 ‘요’이 유성음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2는 ‘키’의 발음과 ‘시’이 유성음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3은 ‘지’의 발음과 ‘히’이 유성음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4는 ‘두’의 발음과 ‘투’이 유성음화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5는 유성음 ‘ㅈ’를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 6과 7은 유성음화에 관한 문제, 8은 축음이라 불리는 ‘っ’를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이다. 유성음화에 관한 문제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음운론적으로 의미의 구별에 관여하는 일본어에서 성립되는 출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에서 11까지는 자모순에 관한 문제이다. 짝이 된 두 단어 중에서 자모순이 빠른 번호끼리 짝을 만들면 '1-3, 1-4, 2-3, 2-4' 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고르는 문제이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12	어휘	後 [어느, 뒤, 바지, 기차]	0.942
13		もっと [다, 더, 무슨, 왜]	0.836
14		とお [여섯, 셋, 열, 다섯]	0.906
15	발음	달나라 [다나라, 다라라, 단라라, 달라라]	0.858
16		넓어요 [널벼요, 너벼요, 너러요, 너빠요]	0.762
17		닭도 [달도, 달또, 닥도, 닥또]	0.655
18		삼과 [살과, 살파, 삼과, 삼파]	0.600
19		꽃하고 [꼬하고, 꼬짜고, 꼬타고, 꼬차고]	0.624
20		밖만 [만만, 바깥, 반깡, 방만]	0.702
21		많이 [만히, 마니, 마히, 만니]	0.844
22		농습니다 [노손니다, 노흠니다, 노썸니다, 노흔니다]	0.899
23		전화 [저놔, 정와, 저화, 저와]	0.929

12에서 14까지는 단순한 어휘문제이고, 15에서 23까지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이다. 발음 문제 중에서는 겹받침에 관한 문제와 거센소리되기에 관한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24	조사	저건 화장실() 아납니까? [에게, 이, 에서, 으로]	0.759
25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갑니다. [에서, 부터, 로, 를]	0.709
26		저는 11월에 스물() 됩니다. [에, 으로, 이, 에게]	0.655
27		이 연필은 저 연필() 길어요 [부터, 에서, 의, 보다]	0.586
28		도서관 앞에서 형() 만납니다. [을, 에, 한테, 를]	0.633
29		술() 김치를 삽니다. [에서, 하고, 은, 로]	0.802

24에서 29까지는 조사에 관한 문제이다. 비교의 조사 '보다'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30	회화응답	이 수업은 숙제가 많아요? (아뇨, 하나도 없어요)	0.717
31		이 요리 어떻게 먹어요? (우유하고 같이 먹어요)	0.698
32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책상 옆에 있습니다.)	0.756
33		미안합니다. (아뇨, 괜찮아요)	0.792

30에서 33까지는 회화의 응답을 완성시키는 문제이다. 4가지 선택지 중 3가지는 동문서답이다. 예를 들면, 30의 선택지는 [a.아뇨, 하나도 없어요 b.아뇨, 같이 있습니다. c.네, 교과서가 있어요 d.아뇨,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34	장문	집에서 학교까지 조금 (). [땀니다, 머습니다, 멀습니다, 멀입니다]	0.638
35		집 앞 역에서 전철() 탑니다. [에, 과, 을, 으로]	0.487
36		전철 ()에서 책을 읽습시다. [까지, 안, 밑, 위]	0.756
37		누나는 노래() 아주 잘합니다. [가, 이, 를, 의]	0.243
38		저도 누나() 한국 노래를 배웁니다. [로, 이, 부터, 한테]	0.357
39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 일본에 옵니까? [10월, 4월, 3월, 11월]	0.696
40		4시 [사 시, 시 시, 네 시, 넷 시]	0.753
41		잘못된 것은 [다녀오, 가오, 배워오, 오아오]	0.756

34에서 41까지는 장문을 읽고 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이다. 35와 37, 38의 정답률이 낮은 것은 학생들의 모어인 일본어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42	어휘체계	남자:여자 = 오빠:() [언니, 아들, 머리, 나라]	0.888
43		값값이 = 나() [나가, 내가, 나이, 내이]	0.824
44		저:저기 = 그() [그기, 그저, 거저, 거기]	0.728
45		일:하나 = 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830

42에서 45까지는 어휘체계에 관한 문제이다.

번호	분야	문제	정답률
46	듣기	딸 [CD, 息子, むすめ, すべて]	0.854
47		우리 [靴, 切手, スカート, 我々]	0.967
48		얼마 [いくら, ください, 住む, どこ]	0.934
49		이십이 [1 1, 1 2, 2 1, 2 2]	0.649
50		머리 [弟, ~匹, 歌手, 髪]	0.876

46에서 50까지는 듣기 문제이다. 49의 정답률이 낮은 원인은 1과 2의 구별이 어려운 데다가, 12를 일십이로 발음한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4.3. 중급 이상

응용1(2학년 봄학기 배당)

조사 = 께, 께서

어미 = -려고, -러, -면서, -는가, -느냐

관용표현 = -게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기 때문에, -기 위해, -기 위한
한 틀/을 위해, 틀/을 위한

복잡한 인용형식(1)

응용2(2학년 봄학기 배당) = 강독

응용3(2학년 가을학기 배당)

조사 = 마다, 마저, 밖에, 로서, 로써

어미 = -는데(요), -르께(요), -니까, -며, 권유형, 명령형, 금지형

복잡한 인용형식(2)

응용4(2학년 가을학기 배당) = 강독

3학년 이상 과목

표현법(중급 작문)

원전 연습, 상급 강독

중급 회화, 고급 회화

문화사정(영상 교재를 이용)

5. 과제

앞으로는 고급 과목의 도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작문교재 강독 교재 등 분야별로 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문법 교육

* 본 논문은 2005. 11. 30 투고되었으며, 2005. 12. 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Abstract

Korean Grammar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Japan

Yutani Yukitos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and find the way to develop this. Some institutional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very few people are responsible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Second, teachers who teach Korean scarcely connect with other teachers. Third, the syllabus doesn't be offered. Fourth, in case of teacher who majored in history or literature, not in linguistics, they have difficulty in instructing systematically.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training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ince summer in 2004.

There are also grammatical problems. Grammatical words in one textbook are different from that in other textbooks. 'Vowel sound' and 'vowel letter', 'a postpositional word' and 'the ending of a word' are confused. Each textbook contains different speech level. And, 'a final consonant' in terms of letter and that in terms of sound are also confused.

Considering the sales volume of books on Korean language, after it reached a top point at 1988 Olympic games, it is improving rapidly by the effect of 'strong Korean wind'.

In the ca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arried out in Dongjisa university in Japan, the students who took each beginner's class should take the same examination. This is to establish same standard for evaluating students who took

different classes. Contents of intermediate class contain expression, intermediate conversation, and cultural contents. A task we have to solve is to decide high class level students at this class should reach and to develop the textbooks classifying parts such as reading textbook, writing textbook.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Grammar Education